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9일

**CUOMO 주지사, SANDY 여파 후에 주요 뉴욕주 은행들이 소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음을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여러 주요 뉴욕주 승인 은행들이 폭풍 Sandy가 소비자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응하여 다수의 수수료와 페널티를 면제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수료를 면제할 뉴욕주 승인 은행들에는 M&T Bank, Apple Savings, Dime Savings Bank of Williamsburgh, Emigrant Savings Bank 및 New York Community Bank가 포함됩니다.

“폭풍으로 수 천 뉴욕 주민들의 삶이 붕괴되었습니다 - 이에는 그들의 통상적인 금융 의무와 활동이 포함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납부를 지체하거나 다른 은행 수수료와 페널티를 발생시켰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자신의 은행에서 작동되는 ATM을 찾을 수 없으면 ATM 수수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요 뉴욕주 승인 은행들은 수수료와 페널티를 면제하기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아직 이 같은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지 않은 주 또는 연방 승인 은행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서비스부 부장인 Benjamin M. Law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주 승인 은행들은 커뮤니티 은행으로서 그들이 섬기는 지역과 가까운 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과 지역 업소들을 기꺼이 지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의 모든 은행들이 따르기를 희망하는 표준입니다.”

세부 사항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개별 은행에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적어도 11월 15일까지,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다음 수수료와 페널티를 일시 면제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 ATM 수수료
- 연체료
- 예금 부족으로 부도난 수표에 대한 페널티
- 당좌대월금 이전 수수료
- 고객이 이번 재난으로 인한 입증 가능한 자금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저축의 조기 인출에 대한 페널티

Korean

또한 Lawsky 부장은 은행들이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또는 대출자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커뮤니티들의 현재 신용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건전한 대출을 하거나 건전한 대출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대출자들의 채무 상환 의무를 납부 기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재구성해줄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지 은행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그들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듯이 지역사회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Lawsky 부장이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Sandy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찾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금융서비스부의 Albany 사무소(518-473-61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